

## 12/28(화) 에스라 묵상 4

### 에스라 3: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땅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

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는 약 5만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귀환한 거리는 약 880마일(1,400킬로미터)이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도로가 포장된 것도 아니었고 오 만명의 사람에다가 온갖 식량과 보물 그리고 성전 기구 등을 가지고 서서히 이동했기 때문에 약 5개월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스 7: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스 7:9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포로 귀환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여러가지 자연 재해와 도둑과 강도 그리고 일행 중에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난관을 모두 이기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고향 땅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 모두 폐허가 되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정 건대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각기 지파대로 고향 땅으로 흩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밭을 다시 일구고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모인 이유는 중요한 절기가 7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은 아마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모이기 전부터 미리 제작되고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한 주의 영적인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마치 율법적인 날로 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항상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성전건축을 준비하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와 절기를 드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옹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강성했던 솔로몬 시대의 모습처럼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최고급 재질의 나무들로 멸망 당한 이스라엘의 성전건축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입니다. 당시 시돈과 두로 땅을 모두 다스리고 있던 고레스는 그가 참신이라고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명령대로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주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시작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기를 원하지만 본문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했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방해하고 두렵게 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세력의 공격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덧입을 때 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아무 것도 가진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오늘도 만 왕의 왕이시고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코로나를 위한 기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Omicron)의 전염력을 경고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위험성은 기존 백신을 무력화 시키고 있고 기존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이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 검사 방법, 개선된 백신 개발 등이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현 팬데믹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C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카자흐스탄의 이드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